

“기적이다...이젠 지역벽 허무는 기적 보여달라”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이 본 '이정현 당선'

“공약 꼭 지키고 지역발전 혼신의 힘 쏟아야”

지난 1988년 선거구제 도입 이후 광주·전남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첫 국회의원이 된 이정현 당선자에 대해 지역 내 오피니언 리더들은 예상 외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전남에서 영남보다 먼저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깬다는 점에서 고무된 모습을 보였고, 이번 선거 결과가 영호남의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하지만 남은 임기인 1년 8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소홀히한다면 재선은 어려울 것이라는 애정 섞인 염포성(?) 요구도 나왔다.

문경래 조선대병원장은 30일 순천·곡성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의 당선 의미를 묻는 질문에 “여당 후보지만 현 정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인사임을 고려해 지역민이 선택했다”면서 “여당의 도시임에도 불

구하고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로부터 소외가 커지고 정부 접근 채널이 없는 상황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이고, 여당 후보라도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 지역에 공헌한 사람만 뽑아줘야 한다는 전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수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당 의원으로서 단순히 지역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영호남 갈등을 풀 수 있는 중재인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길 바란다”며 “지역민들의 성숙한 선택만큼 이정현 당선자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현 당선자의 고향인 곡성에서는 여야를 떠나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이 배출

됐다는 점에서 고무된 모습이었다.

향토연구가 김형수(곡성군 옥곡면)씨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곡성출신 국회의원은 고작 4명에 불과할 정도로 인물난에 시달려 왔다”면서 “호남민을 볼모로 한 야당 텃밭에서, 유권자도 순천에 비해 9분의 1뿐인 곡성이라는 소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했다는 것은 기적 그 자체다”고 분석했다.

김씨는 “이제는 지역론보다는 인물론이 통하는 세상이 온 것”이라면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곡성도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을 키우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성재 곡성군의회 부의장은 “이정현 당선자의 고향이 곡성이라고는 하나, 곡성과 순천은 사실상 한 몸으로 순천의 아들이기도 하다”면서 “나후된 곡성과 순천의 발전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주고, 선거기간 약속한 순천대의대 유치 등 공약은 꼭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지역주의를 버리고 고향 출신 대신 곡성 출신을 선택한 순천시민의 분위기는 침

착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만한 인물을 선택한 만큼 얼마나 잘하는지 일단 지켜보겠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송재인 순천시생활체육회장은 “이정현 당선자를 선택한 것은 당을 떠나 순천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면서 “임기 내에 순천만 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승격시켜 주길 바라며, 순천대 의대 유치 공약도 꼭 지켜줬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병곤 순천 우리내과원장은 “순천발전을 위한 투명한 공약들이 마음에 들었고, 순천을 위해 많은 예산을 많이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면서 “다만 1년 8개월의 임기를 수행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뽑아주지 않으니 된다는 심리도 작용한 듯하다. 이러한 지역 여론을 잘 파악해 순천을 비롯한 전남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kwangju.co.kr
/순천=김은중기자 ejkim@kwangju.co.kr

평화맨션 안전진단비 지원 고민되네

북구, 광주시에 3억원 요청...사유재산 지원 선례될까 우려

광주시 북구가 최근 지하기둥에 균열이 발생한 평화맨션에 대한 정밀진단을 하기 위해 시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북구는 입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입주민들이 떠안아야 할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자칫 선례가 될 수 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북구는 지난 29일 평화맨션 안전진단비 7600만 원을 포함한 식비·구호물품비·기타 등 안전진단비 명목으로 3억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이는 북구가 입주민들을 대신해 안전진단비를 떠안겠다는 것이다.

평화맨션은 개인 재산으로 재해가 아닌 이상 안전진단비는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입주민들이 임시 거처에서 장시간 생활해야 하는 점을 감안, 행정기관으로서 입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로 여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북구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민원에선 광주지역에 20년 이상된 아파트가 429개인 점을 감안하면 북구의 이번 결정이 선례로 남으면서 향후 자치단체와 아파트 입주민간 안전진단비 등 사유재산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를 놓고 다투는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한편, 입주민 20명으로 구성된 평화맨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한국구조안전기술원과 정밀안전진단 계약을(비용 7863만 원)를 체결했다. 정밀안전진단은 다음달 27일까지다.

/이종희기자 golee@kwangju.co.kr



“타요버스 타고 교통안전 교육 신나요” 30일 광주신세계 앞 주차장에서 어린이들이 타요버스를 타고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받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헬기 추락 순직 소방관 추모 광주시민에 감사”

강원도 동료들 내일 광주방문

세월호 수색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강원지역 소방관들의 동료가 광주를 찾는다.

강원지역 소방관들의 광주 방문은 지난 17일 광주 수원지구에 추락한 강원 소방본부 소속 헬기 사고 수습을 도왔던 광주시 등 공공 기관 관계자들과 소방관들의

순직을 추모해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광주지방경찰청과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김성근 강원도 소방본부장 등 6명으로 꾸려진 ‘광주 방문단’이 다음달 1일 광주를 방문한다. 여기에는 헬기 추락 사고로 인한 순직 소방관(5명)의 직속상관인 강원소방 강운중(56·소방정) 특수구조단장 등 특수구조대 소속 소방관 3

명도 포함돼 있다.

광주를 찾은 소방관들은 우선 광주시청에 들려 헬기 추락사고 당시 신속하게 사고 수습 본부를 꾸리고, 시신 수습에 나서 준 관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강원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광주 방문은 헬기 추락사고 수습 당시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해준 광주시청 등 관계기관과 사고 현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순직 소방관들의 넋을 기려준 광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유병인 시신-유대균 친자관계” 경찰, DNA 대조 확인

경찰은 지난달 12일 발견된 유병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과 최근 검거한 유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의 유전자(DNA)를 대조한 결과 친자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검거한 대균씨의 구강 세포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계 유전자 분석을 의뢰한 결과가 이 시신과 대균씨가 부자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 울들어 벌써 3명 사망 비브리오패혈증 첫 ‘경보’

전남지역에서 ‘여름철 폭병’인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3명이나 발생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는 30일 “순천에서 40대 남자가 비브리오패혈증 증세를 보여 치료 중 지난 28일 숨졌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23일 꼬막 양식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로 피부를 통해 비브리오패혈증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5월과 지난달 25일, 나주와 목포에서 6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역시 비브리오패혈증 증세로 숨졌다.

전국적으로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는 6명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전남 3명을 포함 5명이 숨졌다.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은 인천, 경남 등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다 휴가철까지 겹치는 점을 고려해 가장 높은 단계인 ‘비브리오패혈증 경보’를 발령했다. 비브리오패혈증 경보

가 발령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전남도는 폭염주의보 발령 등 무더위로 바닷물 온도가 크게 오르면서 비브리오패혈증의 발생도가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대부분 7~10월에 발생한다. 특히 해수 온도가 18~20도 사이인 8~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최근 10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환자가 발생했으며 89명 가운데 40명이 숨졌다. 지난해는 4명의 환자가 발생, 1명이 숨졌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환경과장은 “경보 발령과 함께 등록 고위험군 환자 안부 살피기, 피서지 바닷가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홍보물 부착, 횃집과 수족관 수시 위생점검 등 특별 예방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회사 직원에 “임신 한 것이냐”고 물으면 성희롱

○...퇴사를 하는 여직원에게 “임신을 한 것이냐”고 물으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눈길.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에 따르면, 반도체 관련 회사의 관리직으로 일하던 중 부하 여직원들을 성희롱한 이유로 해고 당한 한모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회사 측의

해고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자리 등에서 여직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만진 것은 물론 퇴직을 앞두고 상담을 청하는 여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와 무슨 일이 있나. 임신했나’라고 묻는 점도 명백한 성희롱”이라고 판시.

/연합뉴스

(주)오천경매 / (주)오천개발 대표, 최선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시 동구 찬변우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단독/공동투자 가능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입찰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2대1 또는 1대1 투자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 설정으로 보장
연 10~24% 매월 지급
투자기간은 1년 정도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해결합니다.